

어느 직업헌터의 꿈

광역 종합정보통신망이 거미줄처럼 한국 전 지역을 감싸고 모든 가정에 최소한 현대 이상의 컴퓨터가 있는 2010년, 다국적 기업의 홍보실 파트타임으로 재택 근무하는 박혜원박사(여.36)는 IMT 2000 단말기로 E메일이 도착했다는 메시지를 받는다. 박박사가 “E메일을 열어라”는 음성명령을 내리자 단말기에 문자메일이 뜬과 동시에 회사 중역의 음성메일이 이어폰을 통해 흘러들어온다.

“이번의 신규사업 추진과 관련된 홍보자료를 1시간 안으로 보내주세요.”

박박사는 마침 지방대학에 있는 P교수와 서해안 일대를 여행 중이었다.

그는 단말기로 인터넷에 접속한 뒤에 서울에 있는 자기 집 컴퓨터와 연결, 자료를 검색해 즉시 E메일로 전송한다.

이 또한 단말기의 버튼을 누르는 일 없이 목소리로 명령 내리는 것으로 그만이다. 그는 회사일을 마친 뒤 단말기 화면을 통해 코스닥 종목의 증시 변동 상황을 살펴보고 주요 뉴스를 체크한 다음, 역시 단말기를 조작, 원격으로 집안의 가전제품을 모두 켜다.

“자네 정말 놀라운 사람이야. 네트워크 전문가로 알았는데 어느새 세일즈 프로모터가 된거야?”

승용차 옆자리에 앉은 P교수가 묻는

다.

“네, 세일즈 프로모터라기 보다 광고 기획이지요. 재미있어요. 서울 외곽에 특화된 소도시 건설을 추진중인데 이를 홍보하는 거지요.”

“특화된 소도시?” P교수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박박사의 시선을 쫓는다. 대학을 나오자마자 S그룹의 반도체 연구소 연구원으로, 해외유학 후 H그룹의 정보처리 및 컴퓨터응용시스템 분석 전문가로 일하다가 1년 전 현재의 다국적기업으로 옮기더니 몇개월 전부터는 파트타임으로 재택 근무를 하고 있는 그녀에게서 충격과 어지럼증을 느낀다. 그런데 이번엔 ‘특화된 소도시’ 건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역사를 전공하는 P교수에겐 그녀의 변신이 놀랍고 불안하게까지 느껴진다.

2003년 한국에는 무선인터넷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상용화 되면서 거리가 없어지고 생활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거리와 시간개념이 파괴되고 전 지구를 하나로 묶는, 인종과 문화의 장벽마저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이다. 대용량 데이터통신이 가능해지고 세계는 글로벌 네트워크 시대가 되었다. 무선 인터넷을 통하면 미국 할리우드에서 제작한 영화를 볼 수 있고 CNN 뉴스를 서울의 거리에서 언제든 볼 수 있게 되었다.

무선 인터넷으로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이동 중에 생기는 ‘죽은 시간’이 ‘생산적 시간’으로 바뀐 것이다.

재택 근무가 보편화되어 통행량을 분산시킴으로써 도심의 교통체증은 사라지고 러시아워라는 말도 옛 말이 되었다. 재택 근무, 파트타임 근무, 자유시간 근무 등으로 근무형태도 다양화되었고 가정주부도 과거 소수계층에게만 국한되었던 전자상거래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어 전자상거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복잡한 유통체계가 단순화 되었다.

대형 건물이 사라지다

그들의 차는 격포를 지나고 아름다운 어촌 모항을 돌아 해변을 달린다. 그녀의 시선을 쫓던 P박사는 잠시 상념에 잠겼었다.

‘멀티미디어의 세례를 받고 성장한 네트워크 세대. 저들은 혼란스럽다.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한다. 끝없는 욕심쟁이들이다. 겁이 없다. 그들은 기성의 직업형태를 거부하며 의문을 품는다. 왜 오직 한가지 일에 집착하고 만족해야하는가? 하고.’

그가 불쑥 말한다. “그만큼 변신을 거듭하고 열심히 살았으면 이제는 정착을 해야지 않느냐? 결혼도 하고.”

“왜요, 제가 불안해 보여요? 평생 한 우물만 파오신 선생님 눈에 저의 변신이 못마땅하신가 보죠. 저는 일이 재미있고 또 재미있는 일만 쫓아 다녀요. 제게 일은 쾌락의 수단이면서 자아실현의 장이거든요. 안정과 고소득보다는 제가 가진 다양한 욕구를 직업을 통해 충족시켜요. 한우물 파서 많은 물을 구하기보다는 끊임없이 다양한 다른 종류의 물 맛을 맛보기 바라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싶어요. 아마 그래서 시집가기가 어려운가 봐요.” 그녀의 말이 떨어지자 P박사는 해안가에 자리잡은 ‘풍천장어’, ‘복분자술’ 간판이 붙은 식당 앞에 차를 세우게 했다.

“여기서 좀 쉬어가지.”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식당 앞에 마주 앉은 P교수의 얼굴이 피로해 보였다. 주문한 장어구이와 복분자 술이 나오자 박박사는 노교수의 흰 잔에 분홍빛 술을 따른다.

“선생님 드세요. 선생님이 변산반도로 오자고 해서 이 곳에 대해 체크해 보았어요. 술을 즐기시는 선생님이시기에 복분자 술에 대해서도 알아 보았지요. 이 곳엔 천연기념물 후박나무 군락지가 있고 이름도 재미있는 팽팡나무, 호랑가시나무 등이 있고 무엇보다 선생님이 관심가지시는 조선후기 실학자 반계 유형원선생의 서재가 있는 곳이라는 것도 알았답니다.”

말을 마친 그녀는 아름다운 빛깔에 끌려 술잔을 비우고 노교수는 그간 서너잔을 비운 터라 얼굴에 화색이 돌면서 신세대 옛 제자의 주도면밀하고 사

려깊음에 느껴워한다.

“고맙군, 그런데 아까 말한 특화도시란게 뭐야?”

그녀는 그녀의 말에 관심을 가져주는 노교수의 물음에 회사가 추진중인 도시계획과 기존 대도시의 변화에 대해 설명한다.

인터넷이 만들어낸 사이버 공간이 초고층 건물을 대신하고, 정보 네트워크가 도로망을 대체해 도심의 기능이 도시 외곽으로 분산된다. 따라서 도시의 상징인 건물이 인터넷에 의해 퇴출되고 있다. 거대한 도서관 건물도 그 효용성이 현저히 떨어졌다. 전화선과 컴퓨터만 있으면 사무실이나 집안이 손색없는 도서관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네트워크를 통해 동화상이나 3차원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가지 않고서도 그 곳에 있는 예술품을 생생하게 감상할 수 있게 되었다. 전자네트워크가 확산되어 있어 업무공간이 도심 대형건물에 몰려 있어야 할 필요가 없어지고 네트워크가 연결된 곳이면 어디든지 사무실이 되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 어느 곳에 있느냐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집은 휴식공간이면서 또한 사무실이 되었다.

도심에 집중된 정부기관이나 기업체의 사무실은 도시 외곽으로 분산되었으며 그에 따라 도시 주변의 아파트 단지나 주택가가 시골을 잠식해 들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도시가 해체된다는 말이잖아?” 듣고 있던 P교수가 술잔을 내려놓으며 하는 말.

“공간적 의미의 대도시는 외부로 흘

어졌지만 분산된 기능을 담당하는 사람과 그들이 필요로 하는 건물이 들어서서 소도시를 형성하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는 직업이나 사업상의 이유로 도시에 몰려있었으나 지금은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싶어 모이게 됩니다. 네트워크를 통해 더 넓은 세계와 연결되면서도 도시형태는 소도시가 되고 또 이들 도시들은 저마다 독특한 관습, 문화, 분위기 등의 차별성이 한층 부각될 것입니다.”

박박사에게 직업은 도전과 성취의 현상이었다. 한 직장에서 이룰만큼 이루었다는 생각이 들면 새로운 세상에 눈을 돌리고 미련없이 예전의 직장을 떠났다. 끊임없이 새로움을 추구하는 그녀는 떠날 때를 알았고 새로운 길은 잘 열렸었다. 특화된 소도시 건설계획에 관여한지 6개월이 지나 이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P교수와 그의 변산 일대의 산수와 풍광, 풍속, 먹거리, 문화유적 답사 나들이에 힌트를 얻어 부안 일대의 특화 소도시 건설안을 회사에 건의, 회사의 사업계획으로 확정되었다. 그런 그녀가 새로운 일터를 찾아 이 직장을 떠나려 결심한다.

전 세계를 여행하고 살면서 현지에서 직장을 갖고 글로벌리스트가 되려 한다. 여행이야말로 도전적 세대가 지닌 중요한 화두다. 뛰어난 어학실력과 국제감각으로 이국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 새로운 직업에의 도전과 열망이 있을 뿐! ⑤7

池 棋 旭 <자유기고가>